

국어 기출해설 (마책형)

해설 - 유두선 교수(남부행정고시학원)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담배를 피다
- ② 날이 개이다
- ③ 고기를 재다
- ④ 차에 치다

1. 정답 ③

해설 '재다'는 고기 따위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의 의미 '재우다'를 써도 된다.

오답풀이

- ① '피다'는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니 '피우다'를 써야 한다.
- ② 개이다 -> 개다
- ④ 치다 -> 피동사인 '치이다'로 고쳐야 한다.

문 2.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 ② 쓱쓱쓱, 명중률, 푸주간
- ③ 등교길, 늡름하다, 깡충깡충
- ④ 돋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2. 정답 ①

해설 ① 반듯이(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수나비(수컷나비)

에두르다(에워서 둘러막다)

오답풀이

- ② 푸주간 -> 푸줏간
- ③ 등교길 -> 등굣길
- ④ 거적떼기 -> 거적베기

문 3.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 ① 지름길 - 捷徑
- ② 비웃음 - 苦笑
- ③ 마름질 - 裁斷
- ④ 게으름 - 懈怠

3. 정답 ②

해설 ② ‘비웃음’은 조소(嘲笑), 비소(誹笑)이다. 고소(苦笑)는 쓴웃음으로 어이없거나 마지 못해 웃는 웃음이다.

오답풀이

- ① 첩경 ③ 재단 ④ 해태

문 4.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굴동마을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슈아내서 (㉢) 흰해졌는데 그래도 (㉣) 울창했던 것인지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 | | | | | |
|---|-----|-----|-----|-----|
| | ㉠ | ㉡ | ㉢ | ㉣ |
| ① | 뻑뻑이 | 무성히 | 자못 | 위낙에 |
| ② | 츄츄히 | 뻑뻑이 | 위낙에 | 겨우 |
| ③ | 무성히 | 츄츄히 | 겨우 | 미처 |
| ④ | 뻑뻑이 | 무성히 | 미처 | 자못 |

4. 정답 ①

해설 ① 대나무가 들어선 모습은 ‘뻑뻑이’가 좋다 답은 ①, ④로 줄어든다.

㉡은 소나무가 ‘무성히’가 들어가고

㉢에는 ‘생각보다 매우’의 의미인 ‘자못’이 좋고

㉣에는 ‘본디부터’라는 의미의 ‘위낙에’가 적당하다.

문 5.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데점을 쓴다.
-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5. 정답 ④

해설 ④ 선택적인 물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물음표를 쓴다.

예)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오답풀이

① 예) 이 일을 도대체 어떤단 말이나.

예) 이게 누구야!

② 예) 철수·영희, 영수·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놀았다.

③ 예) 성질이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

문 6.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欲速則不達 - 『論語』 -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
-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6. 정답 ③

해설 '욕속즉부달'은 어떤 일을 급하게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을 이른다.

③ '바늘허리 매어 쓰지 못한다'와 같은 의미

오답풀이

- ① 무척 가난한 살림살이를 뜻한다.
- ②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나 또는 바탕이 나쁜 것은 아무리 소중히 다루고 가꾸어도 좋게 될 수 없다는 말.
- ④ 남을 따라서 체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려다가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됨

문 7.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 |
|-------|-----|
| ㉠ | ㉡ |
| ① 生成性 | 死滅性 |
| ② 模糊性 | 明示性 |
| ③ 動態性 | 靜態性 |
| ④ 多彩性 | 規範性 |

7. 정답 ③

해설 ③ 입말은 빠른 속도로 변한다. 는 것은 동태성과 관계 있고, 글말은 비교적 서서히 변한다고 했으니 정태성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 ① 생성성, 사멸성
- ② 모호성, 명시성
- ④ 다채성, 규범성

문 8.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이빨을 준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라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도 흙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들었다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 내가 크게 웃으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려 한 것일진대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리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땅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 박지원, 「상기(象記)」 -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8. 정답 ②

해설 ② 후반부에 사람들은 생각의 범위가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로 하늘의 이치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마지막 부분에 꼬끼리가 쥐에 꼼짝 못한다고 했다.
- ③ 어금니가 먼저 닿기 때문에 코가 길어진 것이라고 했다.
- ④ 닭의 다리를 길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란 말은 없다.

문 9.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서론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IV. 결론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9. 정답 ③

해설 개요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관한 글이다. ③에서 현황을 토대로 필요성을 밝히고 장애요인 해결하는 내용이 바른 글쓰기이다.

오답풀이

- ① 현실 개탄하는 내용은 거리가 멀다.
- ② 초점을 장애요인에 맞추면 안 된다. 장애요인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④는 서두부분에나 어울리는 내용이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10. 정답 ④

해설 ④ 앞부분에 먼 바다에서는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오답풀이

- ① 둘째 단락에 끈으로 파동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첫째 단락 마지막에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했다.
- ③ 마지막 단락에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라 했다.

문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노장은 결코 늡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 ②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 ③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④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11. 정답 ④

해설 ④ ‘-는다’를 붙여 말이 되지 않으므로 형용사.

오답풀이

- ① ‘늡는다’가 말이 되므로 동사
- ② ‘키우다’는 크다의 사동사
- ③ ‘뵤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일 때는 동사이다.

문 12.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12. 정답 ④

해설 ④ ‘여쭙다’는 높임말이다. ‘아랫사람’에게는 ‘물어’로 써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말씀’은 낮춤말로 쓰인 것이다.
- ② ‘많으시다’는 간접 높임
- ③ 당신은 재귀칭 대명사이고, 높임으로 쓰였다.

문 13.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② 千里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③ 多情도 病人 냥혀 줌 못 드러 흐노라
- ④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13. 정답 ①

해설 시조의 종장은 3자, 5자, 4자, 3자의 리듬을 지닌다.

- ① 3자, 4자, 3자, 4자의 리듬이다.

문 14.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랑이 소리를 높히 혀야 나를 불러 저기 물밧출 보라 웨
 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밧 흥운을 헤앗고 큰 실오리 꺾
 혼 줄이 붉기 더욱 괴이히며 괴운이 진흥 꺾흔 것이 츠츠 나
 손바닥 너비 꺾흔 것이 그믐밤의 보는 솟불빋 꺾더라. 츠츠
 나오더니 그 우흐로 적은 회오리밤 꺾흔 것이 붉기 호박 구
 슬 꺾고 뭍고 통낭헝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②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 ④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14. 정답 ②

해설 ② ‘솟불빋’에서 ‘블’이 ‘불’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그믐밤의’에서 ‘의’는 관형격이 아니고 ‘에’라는 처소격으로 사용되었다.
- ③ ‘붉기 통낭헝기’에 ‘기’가 사용되었다.
- ④ ‘높히’ ‘물밧출’등에 혼철 표기가 되었다.

문 15.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
 를 씁니다. ㉡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하
 셧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
 셧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가능한 자주 ㉧ 연락드릴게요. 내
 내 평안하세요.

-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서’으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
 다.

15. 정답 ③

해설 ㉢ 내용상 부정의 의미로 써야 하므로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고치는게 맞고 ㉦ ‘될 수 있는 대로’의
 의미인, ‘되도록’으로 바르게 고쳤다.

오답풀이

- ① ㉞도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② ㉡ 자신을 높이면 안된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
- ④ ㉢ 어른에게는 ~해요체로 쓰지 않는다. '드리겠습니다'로 고쳐야 한다.

문 16. 다음 글과 논증 방식이 가장 가까운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뽀플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뽀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에 뽀플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 ②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레인지가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 ③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16. 정답 ③

해설 <보기> 글은 유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기 흐름을 유사한 물의 흐름으로 설명했으니 유추이다.

오답풀이

- ① 연역법
- ② 연역법
- ④ 예시, 귀납

문 17.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어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

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 ①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 ②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겠군.
- ③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
- ④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17. 정답 ②

해설 ②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좋다’(ungood)로 표현한다고 했다.

문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時時로 멀이 드러 北辰을 바라보며
 ① 傷時 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는다.
 ②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 (중략) ...
 吾王 聖德이 欲并生호시니라.
 ③ 太平天下에 堯舜君民 되야 이셔
 日月光華는 朝復朝호얏거든
 ④ 戰船 트던 우리 몸도 漁舟에 唱晚호고
 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 이셔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호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① ㉠: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 ② ㉡: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 ③ ㉢: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볼 수 있다.
- ④ ㉣: 안빈낙도보다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18. 정답 ④

해설 ④ ‘전선타던 우리 몸도 고깃배에서 노래부르고’ 전쟁이 끝난 후에 배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풍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북신(임금)을 바라보며 늙은이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충정의 마음이다.
- ②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나라에 지꼈느냐’는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태평천하를 갈구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다.

남양덕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몬다

- 윤제림, 「공군소령 김진평」 -

(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

- 마중기, 「아프리카의 갈대」 -

- ①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② (나)는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③ (다)는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덕’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20. 정답 ④

해설 ④ (라)는 굶어 죽는 사람들을 생각 못하는 개미떼로 표현하고, 그들을 응접실을 치장하고 앉아 있는 인간들과 대조하여 화자는 보잘것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오답풀이

- ① (가)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②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 ③ 남양덕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다.

유튜브에서 ‘국어선’을 검색하면

해설강의와 2018년 선국어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